

출발점: 욥기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 ✓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잠 1:9)
- ✓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네가 나를 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오히려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켰느니라(2:3).
- ✓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삽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뵈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한하고 리꿀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42:5-6).

I. 주제: 신정론(神正論, theodicy)—악의 문제 (특히 무죄한 자의 고난)

A. 철학적 사고와 논리적 모순

1. 하느님은 절대 선하시다—악을 미워하신다.
2. 하느님은 절대 전능하시다—악을 제거할 힘이 있으시다.
3. 악이 존재한다.

B. 욥기의 신학적, 실존적 문제

1. 신의 입장에서. 욥이(인간이) 까닭 없이—대가를 바라지 않고—경건할 수 있겠는가?(1:9): 질문만 던지다
2. 인간의 입장에서. 죄 없이 고난이 있을까?(4:7):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5:8); 하나님이 어찌 심판을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네 자녀들이 주께 득죄하였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붙이셨나니 (8:3-4)
3. 끝보의 말: 11:5-9 (%\$%^&\*???)

욥도 세 친구들과 마찬가지로 고난은 죄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했다. 차이점이란, 욥은 자신이 벌 받을 만한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의 친구들은 몰랐다. 그렇기에 친구들은 회개를 촉구했고, 욥은 까닭 없는 고난에 대한 이유—자기를 변호할 기회(욥 31:35-37)—를 구했다. 저자만이 왜 욥이 고난을 받아야 하는가를 드라마 형식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 (신학하기의 또 다른 예)

II. 욥의 심경의 변화: 운명을 접수=>하느님께 불평=>씩은 신학(자)들에 대한 저주

A. 운명을 접수: 하느님이나 인간을 거론치 않음

**첫째 단계:** 조용히 운명에 순종--서문

-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사온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1:21)
-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뇨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2:10)

B. 하느님께 불평—나의 의[공정한 판결]를 빼앗으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27:2)

**둘째 단계**—삶의 저주와 죽음을 동경. 하느님께 죄를 범치 않음

-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었던가 어찌하여 내 어미가 낳을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3:11)
- 하나님이 나의 구하는 것을 얻게 하시며 나의 사모하는 것 주시기를 내가 원하니, 이는 곧 나를 멸하기를 기뻐하사 그 손을 들어 나를 끊으실 것이라.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무정한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할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지 아니하였음이니라(6:8-10)
-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항상 살기를 원치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7:16)
- 내 유일한 희망은, 죽은 자들의 세계로 가는 것이다. 거기 어둠 속에 잠자리를 펴고 눕는 것뿐이다(17:13, 표준새번역)

**셋째 단계**—수동적. 하느님께 섭섭해 함. 하느님은 아마도 힘은 있지만 선하지는 않은 모양

- 힘으로 말하면 그가 강하시고 심판으로 말하면 누가 그를 호출하겠느냐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가령 내가 순전할지라도 나의 패괴함을 증거하리라(9:19-20)
-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함도 불가하고 대질하여 재판할 수도 없고 양척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9:32)
- 오직 내게 이 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리니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옵시며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마옵실 것이니이다...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우시고 나를 주의 대적으로 여기시나이까(13:20-21; cf. 19:11)
- 나의 의를 빼앗으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의 생명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기운이 오히려 내 코에 있느니라)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궤함을 발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단정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죽기 전에는 나의 순전함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일평생 내 마음이 나를 책망치 아니하리라

(27:2-4)

• 내가 의로 옷을 삼아 입었으며 나의 공의는 도포와 면류관 같았었느니라(29:14)

**넷째 단계-능동적. 불만을 감추지 않음**

- 내 영혼이 살기에 준비하니 내 원통함을 발설하고 내 마음의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 리니 나를 징죄하지 마옵시고 무슨 연고로 나로 더불어 쟁변하시는지 나로 알게 하옵소서(10:1-2)
-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흠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 보내려 하시나이까 (10:9--첫째, 둘째 단계와 차이점)
- 그러한데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이 뜻이 주께 있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10:13--표준새번 역: 그러나 지금 생각해 보니, 주께서는 늘 나를 해치실 생각을 몰래 품고 계셨습니다.)
-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소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변백하리라(13:15)
-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핍박하느냐 내 살을 먹고도 부족하냐(19:22)
-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 발견할 곳을 알꼬 그리하면 그 보좌 앞에 나아가서 그 앞에서 호소하며 변백할 말을 입에 채우고...,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편에서 일하 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편으로 돌이키시나 보울 수 없구나(23:3-4, 8-9)
- 주께서 돌이켜 내게 잔혹히 하시고 완력으로 나를 핍박하시오며(30:21)

**C. 썩은 신학(자)들에 대한 저주**

**다섯째 단계-적극적. 저주의 말. 인간에게**

- 친구를 지적하여 해를 받게 한 자의 자식들은 눈이 멀지니라(17:5)
- 악인이 하나님께 얻을 분깃, 강포자가 전능자에게 받을 산업은 이것이라 그 자손이 번성하여도 칼을 위함ियो 그 후에는 식물에 배부르지 못할 것이며(27:13)

**욥의 자기주장**

- 누구든지 나의 변백을 들을지니라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원하노라. 내 대 적의 기록한 소송장이 내게 있었으면, 재가 어깨에 메기도 하고 면류관처럼 머리에 쓰기도 하며 (31:35-36)
- (엘리후의 말) 네가 실로 나의 듣는데 말하였고 나는 네 말소리를 들었느니라 이르기를 “나는 깨끗하여 죄 가 없고 허물이 없으며 불의도 없거늘 하나님이 나를 칠 틈을 찾으시며 나를 대적으로 여기서 내 발을 착고 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하였느니라(33:8-11)
-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제하셨고 내가 정직하나 거짓말쟁이가 되었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내 상처가 낫지 못하게 되었노라 하니(34:5-6)
-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 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 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19:25)

**생각해 볼수록...**

1. 학자들은 욥기가 포로기 혹은 포로기 이후에 쓰인 작품으로 여김. 즉, 당시 유행했던 신명기 신학에 대한 새로운 목소리. 의인이라고 다 잘되고, 악인이라고 다 망하냐? 거꾸로 말해, 비참한 삶이 악인 의 증표인가? 예) 21:19-21 하나님이 그의 죄악을 쌓아 두셨다가 그 자손에게 갚으신다 하거니와 그 몸에 갚으셔서 그로 깨닫게 하셔야 할 것이라 자기의 멸망을 자기의 눈으로 보게 하시며 전능자의 진노를 마시게 하 셔야 할 것이니라 그의 달 수가 진하면 자기 집에 대하여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 출 20:5
2. 하느님은 모든 것-선과 악-의 원인(12장)
3. 세 친구의 말은 보통 기독교인들이 잘 입에 올리는 "하느님의 뜻" 등등의 무책임한 말은 아닌지. 엘 리후의 말 중 34:7-9는 무엇에 근거한 말인가? 욥기에만 "하나님"이란 단어가 무려 159번 등장 (공 동번역 151번; 표준새번역 237번; KJV 115번). 우리 생각과 말을 얼마나 하나님이란 이름을 빌어 표현하는지 단적으로 증명. 코끼리의 일부분을 만지고 코끼리에 대해 설명하는 장님처럼, 하나님이 란 그 말을 쓰는 사람의 이해와 신앙에 의해 제한.
4. 욥의 하느님 이해에 의하면, 그의 고난이 하느님으로부터 비롯. 그러므로 하느님을 원망. 유일신 인 격적 신관이 갖는 단점
5. 38-41장 저자는 동물학자? 공중의 새, 땅의 사자, 물속의 하마, 악어 저자가 보는 하느님 왓: 아무 도 그것을 격동시킬 용맹이 없거든 능히 나를 당할 자가 누구냐(41장-악어장 41:10)
6. 하나님과 대면 후 욥의 태도는?
  - a. 더 이상 변론하지 않음(40:4-5) 왜?
    - 1) 하느님 말씀이 말 같지 않아서; 2) 하느님이 너무 잘나고 똑똑해서. 말싸움에 질 게 뻔하니까;
    - 3) 하느님의 언행에 뭔가 오묘한 목적이 있겠지 하는 막연한 믿음 때문에 그것조차 없다면, (그런 하나님을 섬긴 자신이) 정말 쪽팔리니까; 4) 욥은 (혹은 저자는) 아는데, 독자는 모른다(의로운 욥에게 버림받는 하느님을 상상할 수 없기 때문에?); 5) 해탈?
  - b. 회개(42:6)?--뭘?
7. 고난 이전과 이후의 차이: 주식이 두 배로 뛰다. 이 말의 의미는?

분명한 사실.

1. 욥은 의롭고, 책망받을 일을 하지 않았다(1:1, 8; 2:3). 그는 하나님에 관한한 옳게 말한 유일한 사람이다(42:7).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데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 같이 정당하지 못함이니라(42:7).

Within those two parameters of interpretation, four things call for the closest examination a reader can muster: (a) Satan's speech to God, (b) Job's Oath of Innocence, (c) God's two speeches to Job and (d) Job's two responses to God. Only a proper handling of these four keys will unlock the treasures to be found in *The Book of Job*.

a. 창세기와는 달리 악의 근원을 인간이 아닌 하나님에게 둔다. (지혜문학) 아담이 하와/이브의 말/유혹을 들은/따른 것과는 달리, 욥은 하나님을 저주하라는 자신의 아내의 말을 따르지 않는다(2:9-10).

First Cycle of Speeches (Job 3:1-11:20)

- (1) Job(Job 3:1-3:26)
- (2) Eliphaz (Job 4:1-5:27)
- (3) Job(Job 6:1-7:21)
- (4) Bildad(Job 8:1-8:22)
- (5) Job(Job 9:1-10:22)
- (6) Zophar(Job 11:1-11:20)

Second Cycle of Speeches (Job 12:1-20:29)

- (1) Job(Job 12:1-14:22)
- (2) Eliphaz (Job 15:1-15:35)
- (3) Job(Job 16:1-17:16)
- (4) Bildad(Job 18:1-18:21)
- (5) Job(Job 19:1-19:29)
- (6) Zophar(Job 20:1-20:29)

Third Cycle of Speeches (Job 21:1-37:24)

- (1) Job(Job 21:1-21:34)
- (2) Eliphaz(Job 22:1-22:30)
- (3) Job(Job 23:1-24:25)
- (4) Bildad(Job 25:1-25:6)
- (5) Job(Job 26:1-31:40)
- (6) Elihu(Job 32:1-37:24)

Why?Why?Why?Why?Why?(Job 3:11-12,16,20,23)

Unsolved problem

1. Job's integrity never questioned by God.

2. God is not blamed. erefc

3. case settled? how? => renewed theodicy?

하나님은 욥을 자신과의 대화에서 그를 침묵시킴으로써, 우주가 합리적인 원리를 따라 운행된다고 보는 생각(비교. 잠언사상)이 잘못되었음을 가르친다(합리성의 원칙을 철회). God is subject to causal responsibility; but not moral blameworthiness

욥은 창조의 신비에 비추어 볼 때 자기의 존재가 보잘것없다는 것과 다시는 자기주장을 내 세우지 않을 것을 고백한다(42:1-6).

아마도 로기 이후에 전통적 신학(e.g., 신명기)이 도전을 받을 때, 신학적 공백 속에서 일어나는 지혜문학 또 그 위협에 탈출구를 시도. 질문은 훌륭하나 대답이 신통치 않음--현문우답(賢問愚答). Whirlpool Speech 38-41장을 도배하다시피 하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은 문제시하지 않았다. 문제

는 이유 없는 고난에 대한 답이다. (1:9; 2:3; 9:17)  
독재자 '하나님'께 굴복한 욥의 모습. 근본보수의 승리(?). 인과응보 신학에 대한 도전이 제자리로 돌아  
옴. (David Clines-- The book ends where it began, and it appears to be the position of the  
friends, not of Job nor even of the voice from the whirlwind, that triumphs in the end.)  
13:14-15 다시 읽기.

욥 42:7. 욥의 친구들은 칭찬을 들은 것이 아니라, 꾸중을 들었다. 즉, 전통신학이 틀렸다는 말. 그들은  
의인에게는 복을 불의한 자에게는 저주를 말하지만, 욥은 그런 것 없다. 의인에게나 악인에게나 똑  
같이 멸한다(9:22). 이게 말다=>Isa 45:7

Robert Sutherland, Putting God on Trial: The Biblical Book of Job

This answer is posited on four pivotal claims about God: God created a world of unremitting and undeserved suffering in order to make the highest form of love possible; God cannot reveal this explanation for evil; God expects human beings to challenge the creation of such a world; God will reveal the answer on the day of the final judgment.

I would describe myself as an evangelical Christian, though not a fundamentalist. I believe the traditional doctrines of Trinity, Incarnation, substitutionary atonement, bodily resurrection, heaven and hell.

God has a moral reason for sending evil. Man has a need and a right to know that reason. But God need not provide that reason here and now. An adjournment of God's trial to the Day of the Final Judgment and its continuation then is strongly implied. It is implied through the allusion to Abraham. It is implied through the allusion to a Redeemer who stands up in court at the Final Judgment to plead Job's cause. It is implied through the allusion to the apocalyptic destruction of Leviathan at the Messianic banquet and the explanation of all things that follow

עַל־כֵּן אֲמַאֵס וְנִחַמְתִּי עַל־עָפָר וְאֶפֶר:

Therefore I reject (my complaints) and I console myself on ash and dust (욥 42:6, AWP).